정확한 죄의식과 정확한 구원

(예레미야 애가 4:1~22)

4.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여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 줄 사람이 없도다
5.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6.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9.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감이로다
10.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정확한 죄의식과 정확한 구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정확한 죄의식과 정확한 구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시작하며 "슬픔의 정확도를 높여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선민은 정확한 슬픔을 아는 자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슬픔의 정확도가 이방인들과 차별화되는 사람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슬픔이 정확하다는 말을 달리하면 죄의식이 정확함을 뜻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죄의식이 정확할 때에 구원도 정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구원받음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 신앙인의 삶은 김빠진 콜라와 같이 되어버립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독생자 예수님이 투자되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우주 전체의 값어치를 환산한다 한들 독생자 예수님에 미칠 수는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값진 예수님이 투자되어서 구원을 이루셨는데도 우리가 그 구원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1억이 생기면 기쁠 것입니다. 10억이 생기면 졸도할 정도가 될 것이고, 100억이 생기면 병원에 입원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우주보다 값진 예수님을 투자해서 이루신 사건인데 이 구원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구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이 무엇인지 모르

는 이유는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는 상태에 대한 슬픔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시며 탄식하셨던 기도는 이러한 의미에서 정확한 슬픔의 이유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인간들이 저지르고 처해있는 죄악 된 상황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이 저주의 상태가 얼마나 지독한 것인지를 정확하게 아셨기 때문에 땀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 예수님이 가지셨던 정확한 죄의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경의 일화를 통하여 정확한 죄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비롯되는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영어에 남색을 뜻하는 소도미(sodom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동성애가 만연했던 소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이 소돔의 멸망과 롯의 구원에 대한 일화가 나옵니다. 소돔에서 의인 열 명을 찾기 위해 천사들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에 소돔 남자들이 모여서 천사들과 관계하고자 롯을 협박합니다. 이 장면은 소돔의 사람들이 천사들을 보고도 정욕을 일으킬 정도로 지독하게 타락하였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소돔을 역겹게 여기셨고 노아 홍수 이후로는 없었던 전면적인 멸망을 내리십니다.
일찍이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 것은 소돔의 행위자체라기보다는 육신이 되어버린 그들의 상태였습니다. 이 모습을 마음 중심에 놓고 생각해봅니다. 마음을 중심으로 한편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육신과 육신으로 접하는 이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천국 그리고 육신과 세상 사이에 인간의 마음이 끼어있는 셈입니다.
이 마음은 공백의 상태입니다. 진공상태로 비어있는 마음은 채워지기 위해 무엇인가를 빨아들여야만 합니다.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이 빨아들이는 힘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살아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활동은 예외 없이 비어있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흡입력의 표현입니다. 인간의 모든 활동은 정신적 활동이든 육체적 활동이든 마음을 채우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행동한 결과로 마음이 채워지게 되면 기뻐하고 만족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앞서 본 말씀대로 마음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마음이 육신과 육신으로 만나는 세상으로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고깃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시는 죄악의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 죄악은 마음이 육신으로 만나는 대상들

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이 육신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영이 되기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로움입니다.

이제 죄악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았으니 본문을 통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0절까지는 상상을 할 수 없는 정도의 기근과 굶주림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덮쳤음이 드러납니다. 예레미야가 부르는 슬픔과 탄식의 노래가 기근과 굶주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자비로운 부녀들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어머니의 모성은 본능적으로 자녀에게 자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성을 가진 어머니가 자신의 자녀를 삶아먹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참담한 상황이 예루살렘을 덮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너무나도 역설적인 이유는 예루살렘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 이유가 풍요와 다산을 추구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육체로 접하고 느낄 수 있는 이 세상의 풍요로움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결과가, 어머니가 모성애를 잃을 정도의 심각한 육체적 결핍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선민들은 부자 되고 싶었고 하는 일마다 부흥과 번영이 일어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나타난 일은 비참한 결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러한 상황을 보고 소돔을 떠올립니다. 6절을 보면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의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무너졌다는 것은 쉽게 말해 천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민들의 죄가 이러한 소돔보다도 더 무겁다고 합니다.

앞서 우리가 소돔의 타락상을 살펴보았기에 이 말이 더욱 놀랍습니다. 노아 홍수이래에 최대의 형벌을 받았던 소돔보다도 더 역겨운 일을 선민들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소돔은 천사를 향해서도 정욕을 일으킬 정도로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소돔을 역겨워 하셔서 하늘에서 유황불을 내리셔서 일순간에 잿더미가 되게 하셨는데, 선민들의 죄가 이보다도 더 역겹고 무겁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레미야는 슬픔과 탄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풍요와 다산을 좇았던 선민들의 죄가 소돔보다 무겁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대한민국은 과연 소돔보다 의로울까요? 우리는 "부자 되세요."라는 말을 덕담이랍시고 너무나 쉽게 합니다. 그런데 결국 유다가 망한 것은 부자 되겠다는 생각으로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는 일이 부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성애보다도 더 역겨워하시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이렇듯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다보니 구원에 대한 느낌도 정확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서 부자 되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동성애보

다 더 역겹다는 죄의식이 없습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없으니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마음과 표정과 삶의 형태가 전혀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덜 역겨워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동성애 또한 역겨워하십니다. 어떤 핑계나 변명 혹은 정당화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동성애가 간음죄보다 무거운 죄로 여겨지는 이유 역시 죄의식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간음을 하고도 자신이 잘했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자들은 스스로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역겹게 여기시는 것은 저의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 된 성경에 근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보다 더한 역겨운 일이 바로 우리 삶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자 되겠다, 성공하겠다, 주목받겠다는 마음이 동성애보다도 더 역겨워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죄의식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설교에서 말씀드렸듯이 천국비밀이 알려졌을 때에 마음에서 세상이 뒤집히는 파장이 일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러한 파장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민들은 율법과 계명에 적힌 말씀들을 거울삼아서 겨우 몇 가지 죄를 구분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소돔보다도 더욱 죄가 무거웠던 이유는 보다 근본적인 마음가짐의 문제였습니다. 부자 되기를 추구하는 것, 하는 일마다 부흥하기를 바라는 것은 마음이 육신으로 만나는 대상들로 말미암아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는 것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죄의식이 있어야만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의 책임을 추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의 대적과 원수들이 예루살렘 성문을 통해 들어오게 된 것은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의인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본래 하나님과 육신 사이에 끼어있는 마음이 세상으로 기울어졌을 때에 그것을 측정하고 가르쳐주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회에도 해당되는 일이었습니다. 60~70년대에 “잘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외치며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에 교회가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에 어울리며 재정이 풍부한 교회, 예배당이 큰 교회, 사람 수 많은 교회를 꿈꾸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교회의 언어로 번역하여 신앙생활로 가르쳐주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려는 것이야 말로 소돔의 동성애보다 더 큰 죄악이라는 것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외쳤어야만 했습니다. 경제발전의 필요성을 부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외쳤어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대한민국은 발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참된 신앙인들은 더 많아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히려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마음을 교회의 언어로 번역하여 전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스스로도 큰 예배당, 숫자적 부흥, 풍부한 재정을 추구하였고, 목사님들이 큰 차를 타고 다니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확한 죄의식을 잃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교회 내에서 구원의 기쁨은 김빠진 콜라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과 천국을 통해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금욕주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을 지금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는 것은 그 다음 일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온전한 사람의 형태를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천국을 통해서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충족시킨 상태가 하나님께서 본래 그려놓으신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대해서는 바랄 것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생각과 바람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때에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에서 하나님의 뜻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천국으로 완전히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로운 풍요와 다산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며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결코 연인이나 배우자 혹은 자녀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으로 행복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인이나 배우자나 자녀는 하나님으로 인해 생겨난 기쁨을 표현하는 화폭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무엇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으로 생겨난 기쁨이 표현되는 화폭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통해서 기뻐하려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동성애보다도 더 역겨워하시는 죄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민들에게 선지자와 제사장은 이것을 깨닫게 하는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오히려 마음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의인들을 죽이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편 12절을 보면 흥미로운 표현이 등장합니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산과 절벽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요새였고 인공적인 성벽까지 더해져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습니다. 바벨론도 예루살렘을 포위한지 무려 18개월이 걸려서야 함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의 상황을 바라보던 주변 나라와 왕들은 놀랐을 것입니다.

다만 예레미야는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예루살렘의 함락을 언급한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본래 의인들이 살아가던 곳이어야 했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과 천국으로 채워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이러한 예루살렘으로 이방의 대적과 원수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은 선민이 가진 천국비밀이 이방인들이 가진 풍요와 다산에 대한 욕망에 밀려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천국비밀이란 다시 말해 인간의 기쁨과 만족이 본래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도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아직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마음의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추구하겠다는 결심이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만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비밀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의 75억 인구가 지금도 추구하는 기쁨과 만족은 삼위일체의 특산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천국비밀이 알려진 상태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기를 바라는 식으로 나타나는 세상에 대한 추구를 동성애보다 하나님께서 역겨워하신다는 것도 천국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비밀을 모른 채로 살아갑니다. 심지어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들조차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며 천국비밀을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이기에 예루살렘의 죄가 소돔보다도 무거웠듯이 서울의 죄도 소돔보다 무겁다는 것입니다. 서울에 교회가 이렇게나 많은데도 죄가 무거운 것은 교회가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의미도 그러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생산되는 기쁨과 만족은 선민들이 가진 천국비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 관계에 참여해서 사위일체를 이루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룬 자들 혹은 이루려 하는 자들과 이루기를 바라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사위일체가 되는 것 외에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 천국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의인들을 죽이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앞장섰습니다.

본래라면 예루살렘 성은 의인들로부터 시작 된 천국의 파장으로 가득 차야 했고 이윽고 세상으로 밀고나가는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의인들이 죽고 나자 풍요와 다산을 추구하는 욕망의 물결이 오히려 예루살렘 성안으로 밀려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 소돔보다도 역겨워하시는 죄악의 무게를 가진 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죄의식은 정확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비어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어쩔 수 없이 기쁨과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얻기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에 참여하여 사위일체를 이루지 않는 한 불가능합니다. 이외의 기쁨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모든 행동이 죄악이 됩니다. 마음이 육신과 육신이 만나는 세상을 향해 기울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부자 되어서 기쁨을 얻겠다는 마음이 동성애로 인해 기쁨을 얻겠다는 마음보다도 더 역겹다는 죄의식이 우리에게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죄의식이 없었기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마음에서는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대체 무슨 죄를 사함 받았는지를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생활화하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하지 않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부자 되고 부흥하기를 소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통해 마음 공백을 채우려고 합니다. 십자가 붙잡기를 잊는 순간 우리 마음은 여지없이 세상에 대한 소망으로 정복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소돔의 동성애보다 더 역겨워하시는 죄악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할 것입니다.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할 때에 지적해주는 자들입니다. 제사장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내 마음이 참여되어 사위일체를 이루도록 돕는 자들입니다. 기쁨과 만족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특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 때에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고 구원이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세상으로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워하시는 죄악인지를 알 때에 구원의 기쁨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천국비밀이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게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자녀들이 형통했으면 좋겠다.”라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를 계속해서 추구해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비밀을 알고 있는 신앙인이라면 절대 이 물결에 삼켜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12절의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라는 말씀은 선민의 마음 상태를 대변하는 구절입니다. ‘선민들의 마음속으로 이방인이 가진 욕망의 물결이 들어와서 점령할 줄을 누가 알았겠느냐?’라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어느 날은 기쁘고 또 어느 날은 기쁘지 않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식이 정확하지 않기에 구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십자가를 생활화할 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했고 날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십자가를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죄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잘 살기만을 바랍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악의 무게가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고 싶어 했던 소돔 사람들보다도 무겁습니다. 이러한 정확한 죄의식을 가질 때에 십자가 생활화도 가능하며 삶에서 구원의 기쁨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정확한 죄의식을 가짐을 통해 십자가 생활화를 하고 끊이지 않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